



신안군 칠발도 전경. 세계자연보전연맹 지정 준 위협종인 바다제비는 칠발도와 구골도에 주로 번식한다.



바다제비



쇠무릎에 걸려 폐사한 바다제비

쇠무릎풀 없애니 칠발도 바다제비 살아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다제비 서식지 복원사업' 결실

위해식물 없애고 밀사초 8만여개 심어...폐사율 20% 감소

바다제비와 바다쇠오리 등 바다새 번식지이자 동아시아 철새 이동로인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천연기념물 제332호·사건) 일원의 철새 서식지 복원 사업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는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에서 쇠무릎을 비롯한 바다새 위해식물 제거작업으로 대표되는 서식지 복원사업을 통해 바다제비 폐사율이 전년 대비 20% 낮아졌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칠발도에 서식 중인 쇠무릎과 역새 등 위해 식물을 제거하고 이 섬의 고유종인 밀사초 8만4000여 개체를 옮겨와 심는 등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외래식물에 의해 폐사한 바다제비 개체수는 지난해 558마리에서 448마리로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측은 쇠무릎을 제거하고 밀사초

를 옮겨와 심는데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쇠무릎이 칠발도의 생태계를 교란하면서 바다새들의 서식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칠발도에서 관찰된 바다제비 동지의 70%가 밀사초 군락에서 발견됐는데 이는 밀사초 뿌리 아래 토양은 부식질 이어져 쉽게 동지를 만들 수 있고 긴 밀사초 잎이 늘어지면서 비를 막아주고 동지 입구를 가려주기 때문이다. 번식력이 강한 쇠무릎은 그러나 고유식물인 밀사초에 서식지를 파괴하며 결국에는 밀사초 뿌리에 굴을 파고 번식하는 습성이 있는 바다제비의 산란에도 악영향을 줬다. 쇠무릎의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반 풀인 줄 알고 쇠무릎 근처에 동지를 틀거나 날아든 바다제비 수백마리가 갈고리 모양의 쇠무릎 종자에 날개가 달라붙어 죽는 상황이 매년 벌어졌던 것이다.

칠발도의 고유식물도 아닌 쇠무릎은



과거 이곳 등대가 유인 등대로 이용됐을 당시 사람들의 왕래하면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쇠무릎 등 위해 식물 제거와 함께 칠발도와 섬 반경 500m의 해상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바다새의 번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금지지를 알리는 해상 경계부표도 설치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준 위협종인 바다제비는 20cm 크기의 여를 칠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과 일본, 중국에서 6~10월에 번식하고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며, 신안군 칠발도와 구골도가 대표적인 번식지로 전세계 개체군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사초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관계자는 "문화재청, 신안군과 함께 지난 2011년 '칠발도 복원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칠발도가 명성 그대로 칠새들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서식지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칠발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무인도로 면적 3만6993㎡, 최고봉 해발 105m, 평균 경사 50°의 가파른 암벽으로 이뤄졌다. 바다제비, 습새, 갈새 번식지로 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2009년 등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2011년 편입),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2014년 지정)으로 지정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황산·염산 온라인 판매 차단 추진

환경부, 3개사와 협약

법외에 약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SK플래닛, 이베이에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3개사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SK플래닛은 '11번가'를, 이베이는 '옥션'과 'G마켓'을,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를 각각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산하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

에서 수집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정보와 쇼핑몰 내 판매자의 판매 제품에 관한 정보를 오픈마켓에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오픈마켓 측은 불법유통 업체나 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팔지 못하도록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온라인상 유해화학물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환경과학원 "망속 송전선 전자파 안전"

망속에 매설된 송전선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인체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6~9월 서울 지역 어린이집 669곳을 대상으로 지중송전선 주변 전자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일상생활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밝혔다.

과학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주변에서 노출된 전자파의 세기는 평균 1.3mG였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탑승 또는 가전제품 이용 등 일상적인 생활(하루 24시간) 동안 노출되는 전자파의 평균값(4mG가량)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mG(밀리가우스)는 전자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우리나라 인체보호기준(미래장조각학부 고시)은 833mG다. 이 기준을 넘으면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체 조사 지점에서 전자파의 세기는 0.1~9.2mG의 분포를 보였

다.

조사 대상 중 5곳은 4.1~9.2mG로 일상 생활 중 노출되는 전자파 수준보다 다소 높은 지역도 있었다. 이들 시설은 송전선이나 변전소와 5~30m 이내의 가까운 곳에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낮은 수준 전자파(3~4mG)의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도 같은 입장"이라며 "5곳의 전자파 수치도 유의미하게 높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환경부 국립감사에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중 송전선 주변 민감시설(어린이집) 전자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송전선 지중화율이 86.7%로 높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납 기준치 160배' 중국산 키보드 등 32개 어린이제품 리콜

인체에 해로운 납이 기준치의 160배 넘게 검출된 중국산 키보드 등 32개 유아·어린이제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와 어린이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번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스포츠놀이기구인 한 키보드에

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무려 160배가 넘게 나왔다.

일부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 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행 중에 제품이 부서져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용품의 경우 한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 소량이 최대 312배 초과됐다.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번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 의복에서는 코드와 조임끈이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 때 끼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수소가온농도(pH)도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 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가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에서 후원회 밤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환경 사진전, 회원 축하 공연, 만찬 등 2시간 가량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논의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 26년간의 활동을 통해 공공재인 기후, 물, 공기, 국도를 지키는 일은 '함께'여야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며 "생명, 안전,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행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5 후원회 밤 초록동행

2015년 11월 26일(목) 오후 6:30~8:30

장소: 상록회관 4층 연회당(서구 농성동)

2015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회 밤

11월 26일(목) 오후 6:30~8:30

장소: 상록회관 4층 연회당(서구 농성동)

행사내용

- 사진전시
- 회원 축하공연
- 회원사 지원
- 회원사/후사/리서
- 후원회 영상
- 축하공연
- 만찬

법률경매 (추천 특급)

〈8층 상가건물 첨단지구〉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연구시설)
(첨단지구 삼성전자 정문 앞)
(토 500평, 건 904평)

1층 (상가) - 130평
2층~7층 (오피스텔 룸 56개)
(15평, 고급형오피스텔)
8층 (사무실, 주택)

(매가 → 35억)
임대예상 수익 → 보 3억, 월 3,000만
분할등기시 대출 25억 가능!! (실투자금 제로)
(향후 60억 가치 있음)

감정가 35억4천 → 최저가 24억8천

010-6834-4800 / 010-6832-9700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

-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⑥ 서구 쌍충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2백, 월32만) → 매가 3천8백만
-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층(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5백만
- ⑨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칸) 2층~3층 (원룸6개, 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 월520만) → 매가 6억8천만
- ⑩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 월1,020만) → 매가 17억

010-7384-7800

상가 임대 (상무지구)

- ① 상무지구 (5층) / 90평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영가도로 이면코너
(올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주차 2대 무료 / 학원, 보험사, 사무실, 기타

보증금 2,000만 / 월 130만

- ② 법원앞 (1층) 사무실 임대 / 22평
(즉시입주가능, 울리모델링 완비)
버스, 택시승강장 앞 (위치 최고)

보증금 2,000만 / 월 80만

010-6670-9800